



비정규직 이제그만

-김수억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한국사회 비정규노동자의 현실

한국사회 양극화

한국 비정규직 규모(2019년 8월) 856만 명(41.6%)

정규직 분류 사내하청(92만명)

자영업 분류 특수고용노동자(179만명)

전체 비정규직 규모 1110만 명

한국사회 비정규노동자의 현실

한국사회 양극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51.0%

남자 정규직 임금 100

여자 정규직 70.6%,

여자 비정규직 37.7%

대기업(300인 이상) 정규직 100

중소기업 정규직(52.7%)

중소기업 비정규직(37.4%)

한국사회 비정규노동자의 현실

한국사회 양극화

월소득 250만원 미만 57.8%

85만원 미만 16.8%

85만~150만원 15.9%

150만~250만원 25.1%

250만~350만원 14.9%

대기업 중소기업 소득격차 265만원

(통계청, 2017년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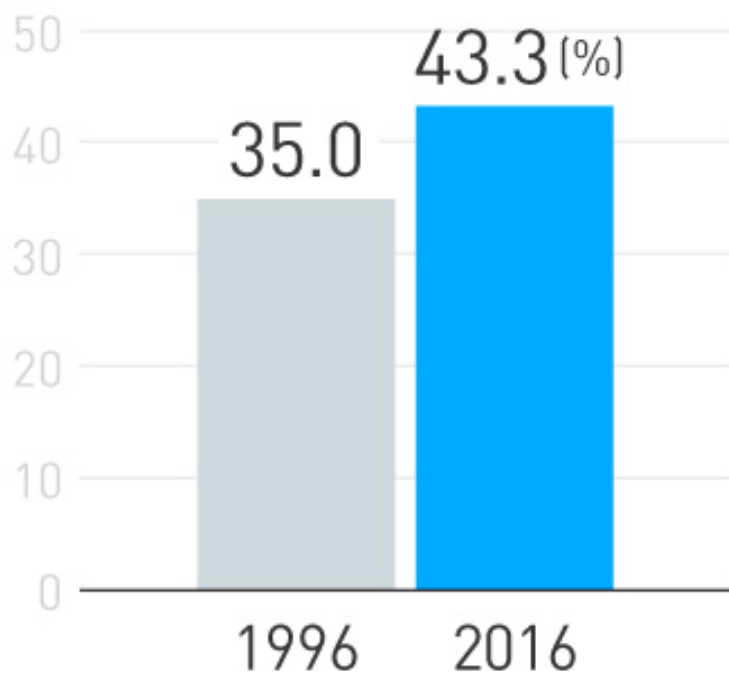
한국사회 비정규노동자의 현실

한국사회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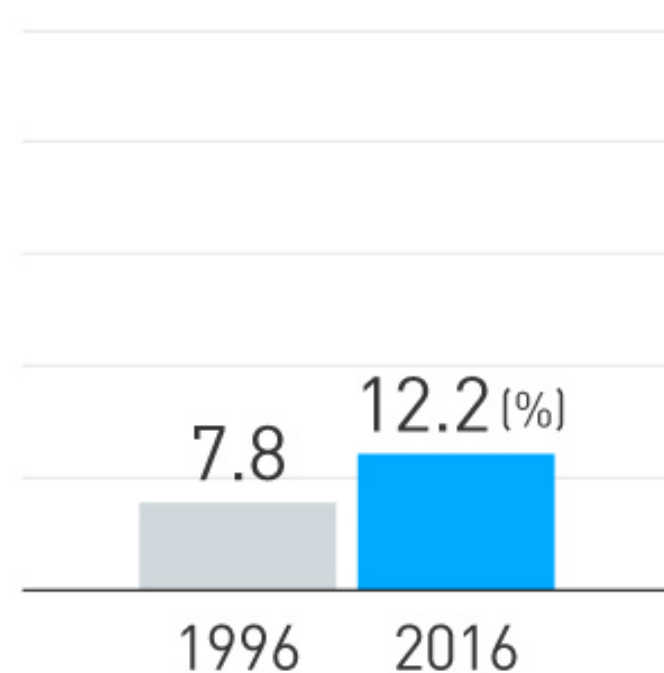
우리나라 소득집중도 *20세 이상 인구 기준



소득 상위 10%의 소득집중도



상위 1%의 소득집중도



한국사회 비정규노동자의 현실

노조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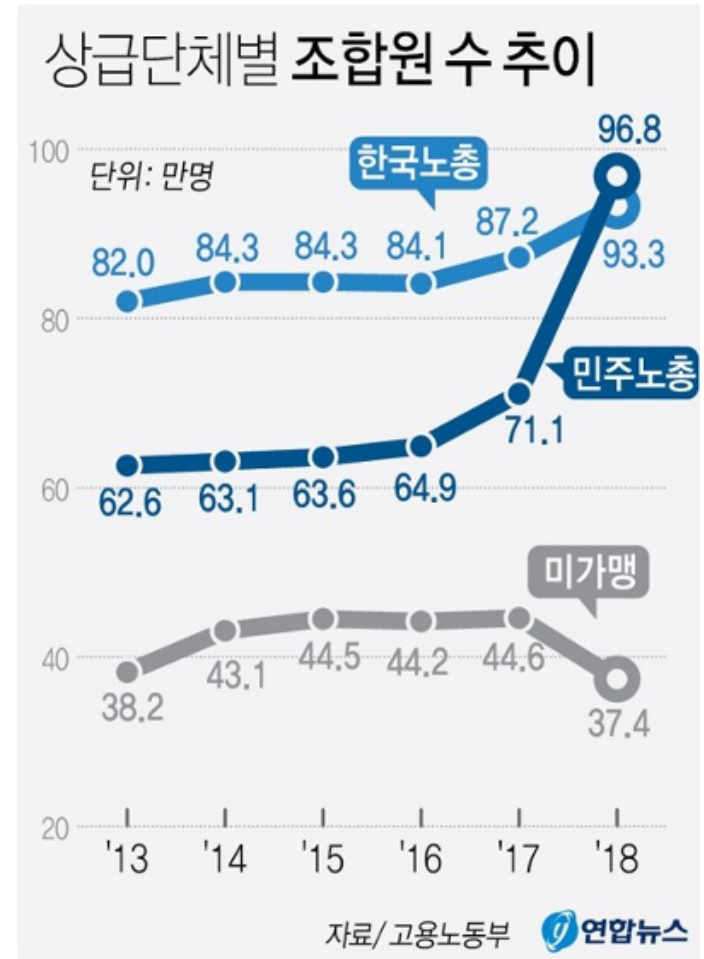
노조가입률 11.8%

(2018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민주노총 968,035명 41.5%(전교조 조합원 제외)

한국노총 932,991명 40.0%

미가맹 373,844명



박영석 기자 / 20191225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oney.kr/LeYN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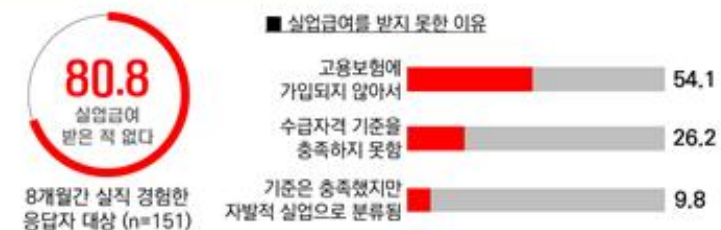
한국사회 비정규노동자의 현실

코로나19 노동재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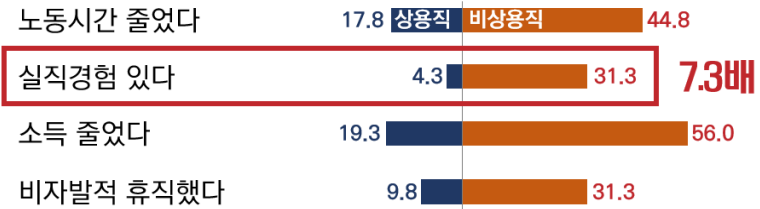
휴업수당 지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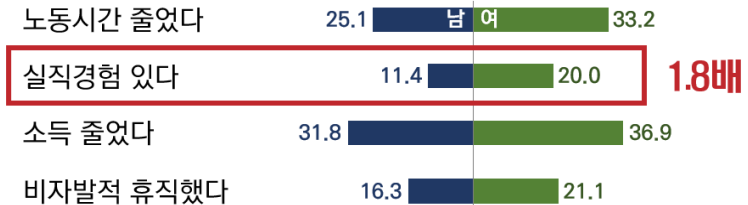
실업급여 수급 여부



코로나19 직장생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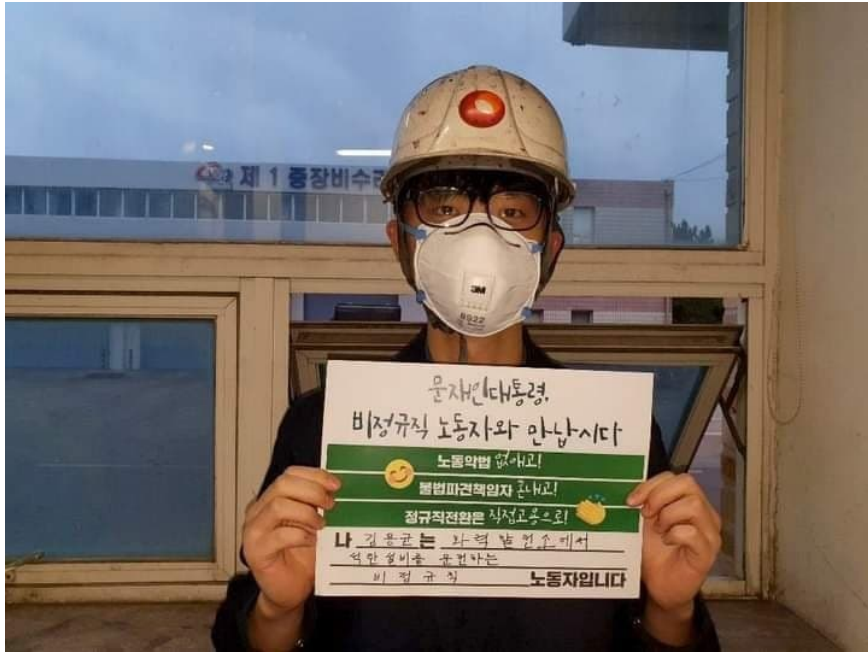
코로나19 직장생활 변화



직장갑질119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3차 설문조사

- 대상 : 직장인 1,000명
- 기간 : 9월 7일~10일
- 의뢰 : 엠브레인퍼블릭

태안화력발전소 스물셋 청년노동자 김용균



스물 일곱, 택배노동자 장덕준- "우리는 도구다"



열 여덟, 열 아홉! 은범이와 민호!



괜찮아요! 432만원!

청년 김용균 죽음 이후

산안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동시 적용
사용자 452명, 산재사
망만 157곳, 실형?

10년 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약 4만여건

95% 벌금형

코로나 집단 감염 150명, 쿠팡 이후는?



하나의 일자리라도 반드시 지키겠다!



배고파서 못살겠어요

직장갑질 119 사례

▶ 비상용직, 서비스



대기업 면세점에서 일하는 파견직입니다. 항공편 축소로 인해
본사측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이 안되니 일단
단축근무, 무급휴직, 권고사직 중 선택하라고 합니다.
무급휴직은 급여가 전혀 없어 단축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일하면 한달 급여 3~40만원 남짓이네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앞날이 너무 깜깜합니다..
파견직은 지원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정말 하나도 없는건가요?
여기서 권고사직 하면 재취업도 어려울 것 같고
이게 몇 달 안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정말 막막합니다..



키워드
안전
불안
노동시간
실직경험
실업급여
소득변화
불이익
생활방역

배고파서 못살겠어요

직장갑질 119 사례

▶ 소득이 줄었다

비상용직

충견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3월부터 무급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을 하지만 직원들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무급휴무를 진행 중입니다. 6월에도 무급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되는 무급휴무에 월급이 절반도 안 나온 날도 있어서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비상용직 5인미만

5인미만 사업장에 다닙니다.(1년 이상 근무) 코로나와 비수기가 겹친 상황에서 5월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하니 해고를 철회하고, 기약없는 무급휴가를 일방적으로 명령하네요. 너한테는 이래야 탈이 없을 것 같다면서요, 자진해서 나가라는건데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잊어야 할까요?



키워드
안전
불안
노동시간
실직경험
실업급여
소득변화
불이익
생활방역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비정규직 이제그만

고 김용균 투쟁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비정규직 이제그만

문중원
열사 투쟁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비정규직 이제그만

5월 1일
세계노동절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비정규직 이제그만

6.20
40리길 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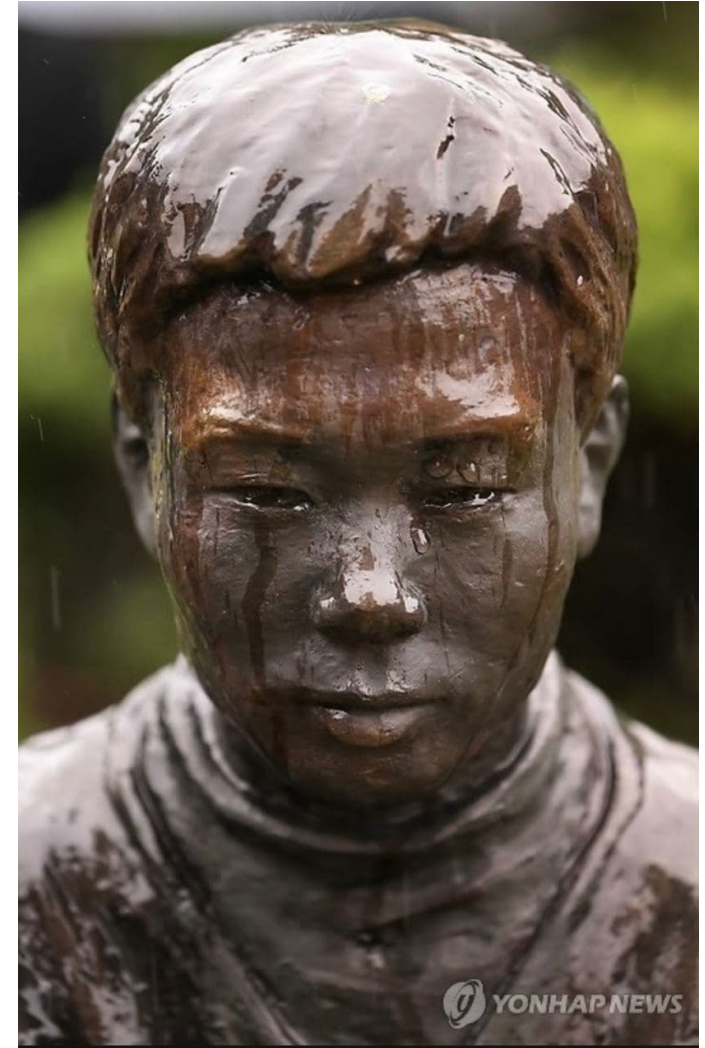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 시대 전태일들의 행진

50일간의
공동행동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 시대 전태일들의 행진

살아오는 전태일



감사합니다!